



미 하원, 농약 관련 조항 삭제 후 농업법안 통과

(US House passes farm bill after scrapping pesticide language opposed by MAHA)

미국 하원은 목요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운동 측이 반대했던 농약 제조업체 대상 일부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된 상태로 5개년 농업법안 하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하원 통과는 농업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재원을 포함하는 대규모 법안 논의가 진전된 것을 의미하지만,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상원 통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두바이 외식업계 식재료 수급 차질

(Dubai chefs shrink menus as Iran war makes tomatillos, scallops harder to source)

두바이의 멕시코 레스토랑 릴라 몰리노(Lila Molino)의 셰프 쇼 래시는 아보카도와 토마티요를 항공편으로 들여오고 있다. 토마티요는 중앙아메리카 원산의 작은 녹색 과일로 멕시코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해당 레스토랑의 매콤한 요리에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약 두 달간 이어진 이란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식재료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셰프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폐쇄와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항공 운송 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 4년 만에 밀 수출 재개

(India begins wheat exports after four-year hiatus on bumper crop)

인도 트레이더들은 풍작과 글로벌 밀 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구매자들에게 인도산 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자 인도 무역업체들이 4년 만에 밀 수출을 재개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재 대기업 ITC는 서부 칸들라 항구에서 아랍에미리트항 밀 2만 2천 톤의 선적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 제분용 밀 최대 12만 톤 구매 입찰 실시

(Jordan issues tender to buy up to 120,000 metric tons wheat, traders say)

요르단 국영 곡물 구매기관은 원산지 선택 조건의 제분용 밀 최대 12만 톤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5월 5일 화요일이다.

출처: Thomson Reuters